

『東醫寶鑑』의 陽明病 概念에 대한 小考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主惠·李仙蘭·李容範

淺析『東醫寶鑑』當中有關陽明病的概念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李主惠·李仙蘭·李容範

通過分析『東醫寶鑑』陽明形證用藥與包括仲景的『傷寒論』在內的主要醫學家對陽明病的概念，得出如下結論：

1. 『東醫寶鑑』的陽明形證用藥當中以大便秘結爲中心，未使用可以囊括陽明病證在內的胃家實這個概念，詳細羅列出陽明病的具体症狀，來給陽明病下了定義。并未將大便秘結作爲代表性症狀，而是根據標本關係分成經病與腑病進行說明。以肌肉作爲表，胃作爲裏的表裏概念分析其症狀。

2. 觀察給陽明病下定義的醫書，發現除了仲景的『傷寒論』與其注釋本成無已的『注解傷寒論』以外，都將目疼，鼻乾，不得眠看做陽明病代表症狀。這種定義方式是從宋到明代的普遍觀點。

3. 在『東醫寶鑑』當中作爲引用書目的『醫學入門』，根據標本，表裏概念對症狀進行了分類。比其之前單純的對症狀的敘述更具有條理性。這可以看做是集當時諸多見解之大成，對病情的分析變的更加具体。選擇『醫學入門』作爲引用書目，可以認爲是採納了當時的最新見解，并且吸收了容易掌握病情的以症狀爲主的記述方式。『醫學入門』就是集以上觀點爲一體的大成。

4. 與太陽病當中太陽形證用藥進行比較，觀察病情的主要觀點，兩者都追從了『醫學入門』的見解。但是太陽形證用藥沒有大範圍超出仲景太陽病的提綱，相比之下陽明形證用藥既沒有引用仲景的『傷寒論』，對症狀的說明也大相徑庭。

5. 陽明形證用藥當中沒有引用仲景的胃家實觀點，而是利用微惡寒，發熱，渴，有汗，目疼，鼻乾，潮汗，閉澀，滿渴，狂譫，不眠等症狀進行說明，比其掌握陽明病作爲臟腑疾病，理解爲以熱爲主的相當于陽明屬性的疾病。

關鍵詞：陽明病，表裏，標本

I. 緒論

『東醫寶鑑』은 선조 29년에 太醫 許浚이 왕명을 받아 정작 양예수 등과 함께 편찬한 것으로, 고려말부터 일어난 향약의 개발정책과 조선 초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에 힘입어 중

* 교신저자 : 李容範,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033-730-0668.

국과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고급의 醫書와 醫說을 종합 절충하여 만든 책이다. 그 특징적인 면들을 살펴보면 金元 醫學을 도입하고 『內經』을 중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원전인 『內經』을 중시하였으면서도, 이에 얽매이지 않고 있고, 또한 傷寒에서도 仲景 傷寒만을 쫓아서 서술하지 않고, 독특한 체계로 엮어 나가면서, 仲景 以後 여러 醫書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취하는 등 병에 대한 인식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

여기에서는 『東醫寶鑑』에서 陽明病의 개념을 서술한 '陽明形證用藥'을 살펴보고, 仲景 『傷寒論』 및 주요 醫家들의 陽明病 개념에 대한 견해를 비교 고찰하여, 『東醫寶鑑』의 陽明病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東醫寶鑑』 「陽明形證用藥」²⁾

【원문】

陽明者, 大腸爲標, 與肺爲表裏, 故微惡寒, 發熱, 爲經病, 宜葛根解肌湯. 渴而有汗者, 宜白虎湯. 胃爲本, 目疼, 鼻乾, 潮汗, 閉澁, 滿渴, 狂譫, 宜調胃承氣湯. <入門>

○ 陽明以肌肉之間爲表, 胃府爲裏. 熱在表, 則目疼, 不眠, 宜葛根解肌湯. 熱入裏, 則狂譫, 宜調胃承氣湯. <入門>

【해석】³⁾

1) 이주혜, 『東醫寶鑑』 傷寒 중 太陽病에 대한 고찰,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년 2월, p. 1 본 논문은 이 논문의 연장선상에 연구된 것이다.

2) 『東醫寶鑑』 원문과 방점은 1981년 대성문화사에서 출판된 『東醫寶鑑』과 법인문화사에서 출판된 『對譯東醫寶鑑』에서 인용하였으나, 필자가 일부 수정한 것도 있다. 許浚, 『東醫寶鑑』 「寒」, 대성문화사, 서울 1981, p. 246. 許浚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譯, 『對譯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p. 1004.

3) 원문에 대한 해석은 법인문화사에서 출판된 『對譯東醫

陽明病에서는 大腸이 標가 되는데 大腸은 肺와 表裏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惡寒이 약간 나고 열이 나는데 이것은 經에 병이 생긴 것으로 葛根解肌湯을 쓰고, 갈증이 나면서 땀이 나는 데는 白虎湯을 쓴다. 胃는 本이 되므로 여기에 병이 생기면 눈이 아프고(目疼), 코가 건조해지고(鼻乾), 潮熱이 나고 땀이 나며(潮汗), 대변이 막히고,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며(閉澁), 배가 그득하고, 갈증이 나며(滿渴) 미쳐서 헛소리를 한다(狂譫). 이런데는 調胃承氣湯을 쓴다. <入門>

○ 陽明에서 肌肉사이는 表가 되고 胃府는 裏가 된다. 그러므로 表에 熱이 있으면 눈이 아프고(目疼) 잠을 자지 못하는데(不眠), 이런데는 葛根解肌湯을 쓰고, 熱이 속으로 들어가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데(狂譫) 이런데는 調胃承氣湯을 쓴다.<入門>

陽明形證用藥은 『東醫寶鑑』에서 陽明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내린 것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은 標本으로 병을 관찰한 것이다. 陽明은 大腸이 標가 되고, 大腸은 肺와 표리가 된다. 그런데 大腸은 五行 중에서 金에 속하고 金은 겹질의 의미가 있어, 외부 邪氣가 침입할 때에 金부터 침입을 받게 된다. 陽明病에 微惡寒, 發熱의 증상이 있는 것은 겹겹질에 병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를 陽明經病으로 본 것이다. 陽明經病에는 葛根解肌湯을 써야 한다고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陽明經病의 상태에서 邪氣가 入裏하여 병의 성질이 化熱하고 진액을 소모하게 되면 갈증이 나면서 땀이 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병이 약간 入裏된 것이므로 清熱하는 白虎湯을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약 本인 胃에 병이 있을 때 目疼, 鼻乾, 潮熱, 汗出, 大小便 閉澁, 滿渴, 狂譫 등의 증상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陽明胃府로 병이 入裏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調胃承氣湯을 제시하고 있다.

寶鑑』을 참고하여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陽明病을 標本으로 나눈 것은 足經絡을 本으로 보고 手經絡을 標로 본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 表裏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表를 肌肉之間으로 보는데, 表에 병이 있다면⁴⁾ 目疼, 不眠, 의 증상이 나타난다. 表에 병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葛根解肌湯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裏를 胃府로 보는데, 병이 裏에 있으면 狂譫의 증상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는, 調胃承氣湯이 제시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東醫寶鑑』에서는 陽明病을 標本과 表裏로 대별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처방 내용을 보면 陽明의 標인 대장에 병이 있을 때나 表인 肌肉에 병이 있을 때 모두 葛根解肌湯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本과 裏가 모두 胃府를 의미하며 제시된 처방도 調胃承氣湯으로 같다. 다만 標本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때에는 白虎湯證이 더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東醫寶鑑』에 陽明病을 설명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標本 表裏의 개념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 仲景『傷寒論』과의 비교

仲景의 『傷寒論』에서 陽明病의 정의는 提綱에 해당되는 조문인 “陽明之爲病 胃家實是也.”에 제시되어 있다.

仲景은 陽明病의 자세한 증상을 열거하지 않고 胃家實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는데, 胃家實이 의미하는 증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東醫寶鑑』에서 제시하는 陽明形證用藥과 仲景 『傷寒論』의 陽明病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陽明病의 胃家實에 대해 『傷寒論』에서는 “正陽陽明, 胃家實”⁵⁾, “陽明之爲病 胃家實”⁶⁾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傷寒論』의 최초 주석자인 成無己는 『注解傷寒論』에서, “正陽陽明, 胃家實”에 대하여 邪가 陽明經에서 腑로 들어와서 大便이 이미 굳어진 것을 胃家實로 보고 大承氣湯을 쓴다⁷⁾고 하였고, 또 “正陽陽明, 胃家實”의 주석에서는 邪氣가 胃로 들어가 熱毒이 남아서 맺히면, 胃家實이 되는 것으로, 邪氣가 陽明에 있는 것을 胃家實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成無己는 陽明病의 胃家實을 大便이 굳어진 증상만이 아니라, 陽明에 邪가 있는 전체적인 증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에서도 陽明病의 胃家實 症狀를 腸胃의 燥屎를 가리키는 증상만으로 보지 않고, 陽明胃에 邪氣가 들어가서 생긴 증상이라는 의미로 보아서 두 가지 증상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燥熱이 亢盛하여 全身 內外에 가득 차서 大熱, 大渴, 大汗 脈洪大 등의 증상이 있고, 腸胃에 정체된 것은 없으나, 邪氣가 치성함을 알 수 있는 것으로 內外의 熱證이 중심이 되는 陽明經證이고, 하나는 燥熱의 邪氣가 腸胃에 정체되어 燥屎가 되어 腸道가 不通하면서 腹滿硬痛, 不大便 혹은 譫語 潮熱 등의 증상을 보이는 陽明腑實證이다.⁹⁾

이렇게 본다면 『東醫寶鑑』의 陽明形證用藥의

華夏出版社, 1997, p. 65.

7) 于伯海主篇,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 <注解傷寒論> 華夏出版社, 1997, p. 65.

邪自陽明經傳入腑者, 謂之正陽陽明. <중략> 手足熾熱汗出者, 此大便已硬也. 大承氣湯主之, 即是正陽陽明, 胃家實也.

8) 于伯海主篇,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注解傷寒論> 華夏出版社, 1997, p. 65.

邪傳入胃, 熱毒留結, 則胃家爲實. 華佗曰: 熱毒入胃要須下去之, 不可留于胃中. 是知邪在陽明 爲胃家實也.

9) 李倍生主篇, 『傷寒論』, 人民衛生出版社, 북경, 1987, p. 265.

一則燥熱亢極, 充斥全身內外, 證見大熱, 大渴, 大汗, 脈洪大等, 是胃腸雖無宿垢阻滯, 然邪氣方張可知, 以其邪氣循經, 內外皆熱, 故多有稱陽明經證者. <중략> 再則燥熱之邪, 與胃腸宿滯相搏, 結爲燥屎, 以致腸道不通, 見腹滿硬痛, 不大便, 甚或譫語, 潮熱等, 多有稱陽明腑實證者.

4) 『東醫寶鑑』원문에서는 “熱在表, 熱在裏”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熱을 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傷寒의 太陽病, 陽明病, 少陽병 모두에서 發熱이 주된 증상이기 때문이다.

5) 于伯海主篇,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 成無己 <注解傷寒論> 華夏出版社, 1997, p. 65.

6) 于伯海主篇,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 <注解傷寒論>

증상과 현대적 의미의 胃家實의 개념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東醫寶鑑』의 陽明形證用藥에서는 증상의 설명에 陽明을 大腸 및 胃와 관계된 병으로 보고 標本과 表裏 개념을 도입하여 좀 더 자세하게 병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각 증상별로 葛根解肌湯, 白虎湯, 調胃承氣湯 등의 구체적인 처방까지 제시하여 陽明病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明以前 醫書에 나타난 陽明病에 정의에 대한 고찰

陽明病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역대 醫書들은 仲景처럼 胃家實의 증상을 내세우지 않은 것들이 많다.

宋代 朱肱은 『類證活人書』에서 足陽明胃經이 병이 생기면 身熱, 目疼, 鼻乾, 不得臥, 尺寸脈俱長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¹⁰⁾, 이러한 증상은 足陽明胃經의 경락 유주와 관계있음을 설명하고 있다.¹¹⁾

朱肱이 기술하고 있는 증상을 『東醫寶鑑』에서 “胃爲本, 目疼, 鼻乾, 潮汗, 閉澀, 滿渴, 狂譫”라고 한 것, 그리고 “熱在表, 則目疼, 不眠”이라 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일부 유사점을 찾을 수는 있으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金元四大家 중 劉河間은 『傷寒直格』에서 “二日陽明受之, 故身熱, 目疼, 鼻乾, 不得眠也.”¹²⁾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太陽病에서 “此足太陽膀胱之經也”¹³⁾라고 명시한 것과 같지는 않지만, 『類證活人書』와 같은 증상을 陽明病으로 본 것이고,

마찬가지로 『東醫寶鑑』과 증상 면에서 일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元の 王好古도 『此事難知』에서 陽明證을 “身熱, 目疼, 鼻乾, 不得臥, 不惡風寒而自汗, 或惡熱, 脈尺寸俱長, 白虎湯主之.”¹⁴⁾라 하여, 『類證活人書』와 유사한 증상으로 陽明病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陽明病을 陽明經의 病이라고 명시하지도 않았고, 標本概念이나 表裏概念으로 병을 파악하지도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朱肱과 劉河間 王好古 등은 주로 陽明病을 足陽明胃經과 관련시켜 설명하려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를 앞에서 언급한 『注解傷寒論』과 비교하여 보면, 『註解傷寒論』에서는 胃家實에 주석을 달면서 陽明經보다는 陽明 胃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明대의 『傷寒六書』와 『醫學入門』에 이르면 陽明病을 標本, 表裏概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¹⁵⁾

명의 陶節菴이 지은 『傷寒六書』의 「傷寒一提金卷之四」중 ‘一提金六經證治捷法’에서는 目痛, 鼻乾, 不眠, 微惡寒 등의 증상은 足陽明胃經이 병을 받아 나타나는 것으로, 가령 먼저 目痛, 惡寒 身熱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陽明經의 本病이고, 이후에 潮熱, 自汗, 譫語 등의 증상이 있고, 목이 마르면서 大便實이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陽明胃腑標病이라고 하였다.¹⁶⁾

『東醫寶鑑』의 인용서인 『醫學入門』에서는 陽明病을 “陽明, 則目痛, 鼻乾, 不眠.”¹⁷⁾이라고 정의

10) 朱肱著, 권건혁역, 『國譯活人書』, 도서출판반룡, 1999, p. 11. 問傷寒二三日, 身熱, 目疼, 鼻乾, 不得臥, 尺寸脈俱長, 此足陽明胃經受病也.

11) 朱肱著, 권건혁역, 『國譯活人書』, 도서출판반룡, 1999 p. 4. 足陽明胃之經, 從鼻起, 夾於鼻, 絡於目, 下咽. <중략>, 故病人身熱, 目疼, 鼻乾, 不得臥, 其脈尺寸俱長者, 知陽明經受病也

12) 劉河間, 『河間醫集』-傷寒直格,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3, p. 540.

13) 劉河間, 『河間醫集』-傷寒直格,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3, p. 540.

14) 于伯海主篇,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 王好古 <此事難知>, 華夏出版社, 1997, p. 149.

陽明證, 身熱, 目疼, 鼻乾, 不得臥, 不惡風寒而自汗, 或惡熱, 脈尺寸俱長, 白虎湯主之.

15) 이주해, 『東醫寶鑑』 傷寒 중 太陽病에 대한 고찰,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년 2월, pp. 9-10.

16) 陶節菴,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 147-148.

目痛, 鼻乾不眠, 微惡寒, 是足陽明胃經受證. 假如先起目痛, 惡寒身熱者, 陽明經本病. 已後潮熱自汗, 譫語發渴, 大便實者, 正陽明胃腑標病, 本宜解肌, 標宜急下, 只看消息用之.

17) 李梴, 『醫學入門』, 대성문화사, 서울, 1982, 傷寒 雜病편, p. 28.

하고 주석에서 그 증상과 범주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¹⁸⁾. 아울러 陽明病을 標本으로 제시하였는데 『東醫寶鑑』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장으로 『東醫寶鑑』과 거의 다르지 않다.¹⁹⁾

특히 『醫學入門』에서 기술한 陽明病의 概念은 明 이전까지 症狀 위주이거나, 經絡 개념만을 도입하여 설명한 것에 標本과 表裏개념을 포함시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結 論

『東醫寶鑑』의 陽明形證用藥에서 기술하고 있는 陽明病의 개념과 仲景 『傷寒論』을 비롯한 주요 의학가들의 陽明病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1. 『東醫寶鑑』의 陽明形證用藥은 大便秘結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陽明病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胃家實이라는 명칭 대신 陽明病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陽明病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증상으로 大便秘結을 내세우기보다는 標本에 의하여 經病과 腑病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肌肉을 表로 胃를 裏로 보는 表裏개념에 의하여 증상을 파악하고 있다.
2. 陽明病을 정의한 醫書を 살펴보면 仲景의 『傷

寒論』과 이에 주석을 단 成無己의 『注解傷寒論』외에는 目疼 鼻乾 不得眠을 陽明病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宋부터 明代까지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견해이다.

3. 『東醫寶鑑』에서 인용서로 밝히고 있는 『醫學入門』에서는 標本 表裏 개념에 의하여 증상을 분류하여 이전의 증상서술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데, 이는 기존의 견해를 집대성하고 병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용서로 『醫學入門』을 채택한 것은 당시의 최신 견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와 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증상 위주의 서술방식을 받아들여, 이들을 집대성한 『醫學入門』의 견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4. 太陽病의 太陽形證用藥과 비교하여 볼 때 병을 보는 주된 관점은 모두 『醫學入門』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太陽形證用藥은 중경의 太陽病 提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陽明形證用藥은 仲景의 『傷寒論』은 인용하고 있지도 않고, 증상설명도 매우 다르다.
5. 陽明形證用藥에서 仲景의 胃家實 견해를 인용하지 않고, 微惡寒, 發熱, 渴, 有汗, 目疼, 鼻乾, 潮汗, 閉澀, 滿渴, 狂譫, 不眠 등의 증상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은 陽明病을 臟腑의 病으로 파악하기보다는 熱 위주의 陽明의 속성에 해당하는 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參考文獻

- 18) 李梴, 『醫學入門』, 대성문화사, 서울, 1982, 傷寒 雜病편 p. 28.
陽爲明, 夾於二陽之中, 陽氣盛極, 故曰陽明. 脈尺寸俱長, 長而微洪, 經病. 長而沈數, 腑病. 太陽脈靜, 則不傳. 如脈數急 欲吐者, 此寒邪變熱, 傳於陽明. 當二三日發, 以其經中客邪故. 目痛, 鼻乾, 身熱者, 陽明主肌肉. 邪甚, 則身前後皆熱. 不眠者, 煩盛津乾, 胃氣不和也. 太陽未罷者, 發熱惡寒, 太陽已罷者, 不惡寒而反惡熱, 煩渴作嘔, 津乾便鞭, 或則狂言, 謂之正陽明. 少陽陽明, 脅滿不大便而嘔, 或瘀血發狂, 或下血譫語, 或胸煩懊惱, 此經所主. 然亦有裏寒下利, 或寒氣結積, 而爲痼瘕者, 不可不知.
- 19) 李梴, 『醫學入門』, 대성문화사, 서울, 1982, 傷寒 雜病편 pp. 33-34.
陽明者, 大腸爲標, 與肺爲表裏, 故微惡寒, 發熱, 爲經病, 宜葛根解肌湯. 渴而有汗不解者, 宜白虎湯. 胃爲本, 目疼, 鼻乾, 潮汗, 閉澀, 滿渴, 狂譫, 宜調胃承氣湯.

1.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寒」, 대성문화사, 서울, 1981
2. 許浚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譯 『對譯東醫寶鑑』, 법인문화사, 서울, 2002

3. 李倍生主篇, 『傷寒論』,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
4. 朱肱著, 권건혁역, 『國譯活人書』, 도서출판반룡, 1999
5. 劉河間, 『河間醫集』-傷寒直格,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3
6. 于伯海主篇, 『傷寒金匱溫病名著集成』 - 王好古 <此事難知>, 華夏出版社, 1997
7. 陶節菴, 『傷寒六書』, 人民衛生出版社, 1990
8. 李梴, 『醫學入門』, 대성문화사, 서울, 1982
9. 이주혜, 석사학위논문, 『東醫寶鑑』傷寒 중 太陽病에 대한 考察, 상지대학교 대학원, 2001